

재보선 D-1, 여야 불법선거 운동 공방

고발-맞고발 흠집내기 난무

강원·김해 등 지도부까지 나서 '진흙탕 싸움' 가세

4·27 재보선을 이틀 앞둔 25일 선거관이 여야의 불법 선거운동 공방 속에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지역구별 판세가 경합·초박빙으로 흐르면서 여야가 네거티브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선관위와 검찰·경찰이 본격적인 불법선거 수사에 나서는 등 과열·혼탁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폴센터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가 직접 간여했다고 보고 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천 지검에 고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모씨가 엄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며 "사법당국은 마땅히 구속수사를 해야 하고 엄 후보 본인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강릉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된 엄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전 조직본부 최모(42)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엄 후보 자원봉사자들의 잘못된 전화홍보는 엄 후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데 민주당은 엄 후보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

치려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 측의 '1% 초박빙'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후보를 추천 지검에 맞고발했다.

하지만, 최 후보 측은 "문자 내용은 한 방송사의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일주일 전에 선관위 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몰타기'"라고 맞섰다.

강원 보선은 후보뿐 아니라 여야 의원 간 고발 및 맞고발로도 비화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이 전날(24일)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 전화홍보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이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권 의원의 주장이 아발로 명예훼손"이라며 "권 의원이 오늘 중 나에게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박았다.

경남 김해를 보선에서 이복수 야당 단일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이재오 특임장관과 장관실 직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특임장관실은 "선거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강릉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강릉 폴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모씨(맨 오른쪽)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분당을에서도 한나라당이 민주당 주승용·김진표 의원이 각각 분당을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고, 주승용 의원 역시 '식사 제공'을 언급한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불법 선거운동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부동층이 조금씩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 막판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부동층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층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변화를 원한다면 손학규 찍어달라”

선거 막판 ‘무한책임론’ 승부수…유시민도 ‘孫지지’ 호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무한책임론'을 전면에 내걸고 막바지 선거전에 임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무한책임론의 물꼬를 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분당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평가도 된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글자 그대로 이번 선거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당 선거는 변화의 요구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날 구미동 무지개 아파트 단지 내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인사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유세차량에 몸을 싣고 "변화를 원한다면 손학규를 찍어달라", "투표 참여를 통해 변화를 선택해달라"고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부터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6일까지 3일간 전철역, 상가 등 7대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구 3바퀴를 돈다는 이른바 '3·3·7 유세'로, 한 장소에서 10분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저인방식으로 바닷을 살살이

쫓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한편, 손 대표와 함께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당원 및 지지자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손 대표는 오로지 야권의 승리,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한나라당의 텃밭이라 일컫어지는 분당을 지역에 출마했다"며 "투표장으로 나가서 손학규 대표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雨요일이면 어찌지...

여야, 날씨·부동층 막판 변수에 촉각 곤두

4·27 재보선이 대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날씨와 투표율, 부동층 표심 등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그만 변수라도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오후 현재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중에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보됐지만 오후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통설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이날 날씨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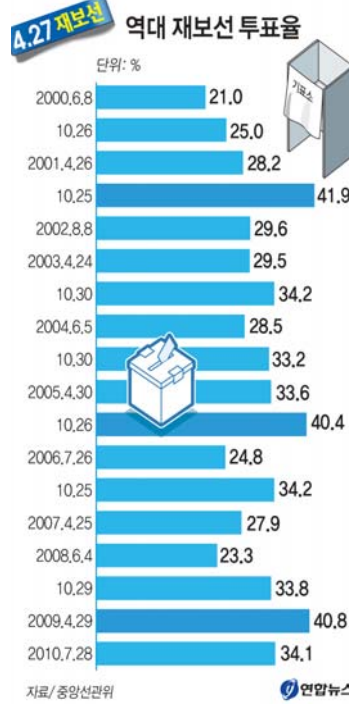
한나라당은 날씨가 궂으면 여당에 우호적인 노장년층 유권자의 투표를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출근 시간이 10분~20분 정도 더 걸리는 만큼, 20~30대 직장인들의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와 관련,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출퇴근 탄력제 확산 여부에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중산층 회사원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선거 막판 부동층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재보선 지역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만큼, 전체 유권자의 7~8%로 추산되는 부동층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법 의결

“시교육청, 시급한 예산 왜 편성않나”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검찰청·군사법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은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거나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

써 실무 수습을 의무화했다.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개특위는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김민중 의원 질타

광주시의회 김민중 의원(민주·광산4)은 25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 교육청이 시급한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놓은 채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예산을 잠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 교육청 예산편성 방침에는 예비비의 비율이 총액대비 0.5% 내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본 예산에는 1.8%인 247억원을, 1회

추경에서는 13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을 편성해 놓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초등학교 154개, 유치원 115개교 중 무려 225개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일부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급식실이 없어 교실 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술한 예산편성을 질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공무원 근속승진 6급까지 확대

민주당은 25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승진의 범위를 현행 7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7급으로 한정된 근속승진제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은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도 초급관리직인 6급에는 대부분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6급까지는 근속 연수만

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정 기간 재직된 공무원과 소방·경찰공무원을 각각 6급 및 소방경·경감까지 근속 승진시키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백원우 의원 기발의), 소방·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윤석 의원 기발의)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한의주치의

3년2개월만에 부활

대통령 한의(韓醫) 주치의가 3년2개월여만에 부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한의 주치의에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을 내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치의는 양·한방 각각 1명씩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주치의는 사둔인 최윤식 서울의대 교수가 유일하다. /임동욱기자 tuim@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로그
디자인

컨설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쪽지!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상담문의
마블아이앤씨

010-2637-9358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공무원대출

공무원 대출

- ▶ 대 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 액 : 500만원~8,000만원
- ▶ 금 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 액 : 500만원~5,000만원
- ▶ 금 리 : 년 9%~
- ▶ 대 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 대구광역시 대표자 :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최저년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년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년33%~44%(연체금리 44%)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행복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